

‘목자득국’의 전단으로 나라 세운 이성계

위서의 사회사 — 9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이성계 진영은 위화도회군의 명분을 쌓고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저한 군사위무 전략과 함께 선동·선전술을 폈다. 민간에는 이성계의 회군을 기대하는 노래가 유포됐고, 병사들 사이에는 이성계 장군이 새로운 왕조를 창업할 것이라는 요언과 ‘목자득국’을 담은 전단도 나돌았다. 이것들은 하늘의 섭리가 작용한 것처럼 백성들을 설득하고 현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역대 왕조를 창건한 개국주(開國主)들에게는 비범한 재능과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이에 따른 갖가지 민중설화가 전한다.

이것은 이성계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계에게 조선왕조 5백년사를 열게 만든 것은 위화도회군이 계기가 됐다. 승자의 역사 기록이니 ‘위화도회군’이지 이것은 엄연한 군사쿠데타다. 요동정벌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병한 군사령관이 병력을 적진이 아닌 자국의 수도로 돌려 권력을 찬탈한 것은 군사쿠데타의 ‘교범’인 것이다.

요동정벌은 군부세력의 사병 소모시키기 위한 전략

요동정벌을 기도한 우왕과 최 영 장군의 정책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지극히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했다. 당시 요동은 이미 명나라가 육일승천한 기세로 지배하고 있었다. 고려의 군사력으로는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왕이 요동정벌을 기도한 것은 이성계 등 군부세력이 거느린 사병(私兵)을 외적과의 전쟁을 통해 ‘소모’시키고자 하는 복심이 있었던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을 통해 번주(藩主)들의 사병을 제거하려 했던 사례와 비슷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면 좋고 져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손해날 것이 없는 전략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시작된 전쟁을 군 지도부나 병사들인들 모를 리 있겠는가. 그래서 요동정벌군은 애초에 전의는 물론 특별히 추천하는 사기를 찾기 어려웠다. 전의나 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적진으로 몰아넣는 우왕과 최 영 장군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넘쳐흘렀다.

요동정벌에 동원된 병력은 5만여명이었다. 전투병력 3만 8천여명

과 보급병력 1만 1천여명이 요동정벌에 나선 고려의 주력군이였다. 병력은 좌군과 우군으로 편성돼, 좌군은 조민수가 지휘하고 우군은 이성계가 지휘했다. 좌우군의 총지휘자는 최 영 장군이였지만 그는 직접 정벌군에 참여하지 않고 평양에서 원거리 통제를 했다. 조민수 역시 이성계의 지휘에 따르게 돼 실질적인 군권은 이성계가 장악했다.

요동정벌이 논의될 때 이성계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제기했다. 위화도회군의 명분도 이에 따랐다. 4불가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소국 고려가 강대국 명나라를 공격해도 승산이 없다.

둘째, 농사철인 여름에 전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

셋째, 명나라를 공격하다가 남쪽의 방위가 허술하게 되면 왜구가 침범하게 된다.

넷째, 장마철이라 병사들이 질병에 걸리기 쉽고 또한 더위로 활의 아교가 풀어져서 전투를 하기 어렵다.

위화도회군 선동한 전단 유포해

아무리 네가지 불가론이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존왕사상이 철저한 전통시대에 관군을 반역군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 진영에서는 철저한 군사위무 전략과 함께 선동·선전술을 폈다.

민간에서는 이성계의 회군을 기대하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유포되고 있었다. 물론 이성계 진영의 ‘작품’이었을 터다.

“평양성 밖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안주성 밖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다. / 평양과 안주사이를 왕래하는 이장군이여 / 원컨대 창생들을 구제하소서”(《태조실록》 1, 총서).

이런 노랫말과 함께 병사들 사이에는 이성계 장군이 새로운 왕조를 창업할 것이라는 요언이 나돌았다. 전단(傳單)도 배포됐다고 한다. 전단의 내용은 단 녀자인 ‘목자득국’(木子得國)이다.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요언이나 전단이 지금 보면 코웃음 칠 일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대단한 전파력과 파괴력 그리고 선동술이 담긴 내용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거둬되는 정국불안과 왜구의 침략 등으로 민심이 매우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이성계 일파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는 민심을 휘어잡는 여러 가

지 대민전략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 내린 임금’ 과 그 왕가(王家)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비록 병권을 장악한다고 해도 그렇게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고려는 무인시대와 원나라 지배라는 치욕을 겪으면서도 독립왕조의 5백년 역사를 유지해온 정통성이 있었다. 여기에 성리학으로 무장한 문신관료와 선비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비록 고려 말기에 원나라와 유착한 조정의 부패한 정치세력이 무능한 국왕을 농락하면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해안지방을 침범해 노략질하는 왜구 때문에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려왕국은 여전히 잔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성계 진영은 꾸준히 민심선무 공작을 폈다.《연려실기술》 권1에 나오는 이성계의 꿈 이야기도 이와 같은 민심선무 차원에서 제작된 혹은 가공된 이야기일 것이다.

“태조가 이때 안변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 집의 닭이 한꺼번에 울고 무너지는 집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나왔으며, 꽃과 거울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놀라서 잠을 깬 태조가 이상히 여겨 옆집의 노파를 찾아가 물으려 하였으나, 노파는 ‘말하지 마시오. 장부의 일을 조그마한 여인이 알 바 아니오.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 굴 안에 기이한 중이 있으니, 가서 물어보시오’ 하는 것이었다. 이에 태조가 찾아가서 물으니 중이 축하하며 ‘여러 집의 닭이 일시에 함께 운 것은 높은 자리

“이성계 일파의 역성혁명에는 여러 가지 민심을 휘어잡는 대민전략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 내린 임금’ 과 그 왕가(王家)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비록 병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성계 진영은 꾸준히 민심선무 공작을 펴게 됐다.”

에 오르게 됨을 뜻하는 것이며, 서까래 세 개를 진 것은 임금 왕(王)자를 가르키고, 꽃과 거울이 떨어진 것은 왕이 될 징조이니, 아예 입밖에 내지 마시오’ 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높은 자리라는 뜻인 한문의 고귀위(高貴位)는 닭의 울음소리와 같다.”(여기에 나오는 중은 후일의 도선선사다)

역성혁명 앞시한 서까래 세 개를 진 왕(王)자

이성계의 근거지였던 동북면 지역(지금의 함경남북도)을 무대로 해 전해지는 이 민간설화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서까래 세 개를 진다’ 는 내용이다. 서까래 세 개(三)를 허리에 지면 영락없이 임금 왕(王)자가 된다. 이와 같은 선전·선동술은 ‘역성혁명’ 즉 임금의 성씨를 바꾸는 일에 하늘의 섭리가 작용한 것처럼 백성들을 설득하고 현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선전·선동은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다. 선전(propaganda)은 기존의 관념에 새로운 관념을 결합한다는 뜻이고, 선동(agitation)은 관념을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따라서 당시 왕권신수설로 인식된 절대군왕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늘의 점지, 즉 천심(민심)의 수렴이 요구됐던 것이다.



이성계 진영은 ‘목자득국’ 이란 전단과 ‘서까래 셋이 등에 내려앉았다’ 는 꿈의 조작 등을 통해 권력을 탈취하고 조선왕조를 개창했다. 사진은 태조 이성계의 영정.

이성계의 왕권탈취에 대해 비판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쿠데타가 성공해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에도 민심은 쉽게 승복하지 않았다.

특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는 이성계에 대한 적대의식이 노골적이었다. 새 왕조에 나와 벼슬을 하라는 이성계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고 두문동에 들어가 평생을 은거한 ‘두문동 72현’의 경우는 후일 이성계를 인정하지 않고 ‘두문불출’의 용어까지 생기게 한 저항의 의미를 남겼다.

신하로서 임금을 벤 ‘이신벌군’ (以臣伐君)의 패륜과 관련한 설화도 전한다. 즉, 이성계가 기해년 돼지띠이므로 돼지고기로 죽을 끓이고는 이를 ‘성계탕’ 이라고 조롱했다. 또 떡국을 만들 때 떡을 칼로 가지런히 썰지 않고 손으로 수제비를 뜨듯 등글게 떼어넣고는 ‘조랑떡국’ 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성계의 목을 비트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고려를 뒤엎고 왕이 된 이성계의 패륜에 반발하는 고려 유신들과 개성사람들의 적대의식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승유역불·중농주의·사대교린의 통치이념을 내걸고 창업을 진행했다. 외교노선으로 채택한 사대교린에서 사대(事大)란 강대국 명나라를 천자국으로 섬긴다는 뜻이며, 교린(交隣)이란 여진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였다.

‘목자득국’ 이란 전단과 ‘서까래 셋이 등에 내려앉았다’ 는 꿈의 조작 등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이성계와 그 후손들은 이씨왕조 5백년을 누린 뒤에는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또 다른 도참설에 시달려야 했다.■